

# 어류 명칭의 사회언어학적 분화 양상 연구\*

- 부산 지역 어부와 상인을 중심으로 -

김지숙(경성대)

##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행위자의 명명 기제에 따른 어휘 유형 |
| 2. 조사 방법 및 지역 개관 | 5. 어휘 유형으로 본 명칭 추론의 단계  |
| 3. 선행 연구 검토      | 6. 맺음말                  |

## 1. 머리말

이 글은 급속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소멸해 가는 부산 어촌 지역의 고유하고 특이한 문화와 그 문화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언어를 기록하여, 새로운 언어 자료를 발굴하고 특이한 언어 현상을 찾아내어 새로운 관점에서 그 자료를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방언 연구에서 방언 분화는 지역의 차이와 사회 계층, 성별, 세대차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았지만(이익섭, 1993:13), 어류 명칭은 이러한 요인들만으로

\*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2015년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의 연구 과제(2015S1A5A8016952)로 수행된 것으로, 2017년 한국방언학회 학술대회(6. 24-25, 아주대)에서 발표한 것임을 밝힌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존 연구자들 중에서는 물고기 이름의 어휘는 어부 집단에서 다양한 어휘로 발달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 집단의 특수어 또는 독특한 직업어를 확립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방언으로 보아야 함을 말한 바 있다. 즉 어휘는 지역적 차이 외에도 언어 사용자 즉 어부, 상인, 소비자의 환경과 인지 관점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를 언어 사용자의 환경과 관련된 사회언어학과 인지 작용을 설명하는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을 도입하여 언어 현상을 인간의 사회 환경과 인지 작용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어촌 생활어가 어부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갖고 시작하였다. 어촌 생활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어류의 명칭을 생산자인 어부뿐만 아니라 어류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어시장 상인의 어휘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즉 행위자의 세계 인식 방법을 통해 어휘 분화 기제와 어휘 분화 양상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어류의 유통에 따른 분화 기제의 적용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행위자의 주변 환경과 인지 관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어류 명칭과 표현을 통해 어류 명칭의 분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류 명칭의 어휘망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어 이 글의 이차적 목적은 행위자의 관점에 따른 어류 명칭의 분화 양상을 기술하여 행위자의 환경과 인지가 명칭 분화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어류 명칭이 어부 또는 상인의 인식 체계의 차이를 보인다면, 생산자들과 유통자들의 인식 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의 분화 기제를 통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2. 조사 방법 및 지역 개관

이러한 문제 제기를 가지고 이 연구는 행위자의 인지 관점과 환경에 따른

어류 명칭을 연구하기 위해 1차 생산자인 어부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2차 매개인인 어시장 상인들의 언어를 서로 다른 어촌 풍경이 공존하는 부산 지역을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 연구 방법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족지학(ethnography)을 통해 조사 방법을 달리하였고, 어류의 유통 경로에 따라 달리 쓰이는 어류 명칭을 고려해 연구 대상자를 어민과 상인으로 이분화시켰다.

그러나 특정 연구 수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의 절차는 언어 공동체의 관계, 수집된 데이터의 종류, 그리고 현장 연구가 수행되는 특정한 상황에 의존하므로 연구자는 때에 따라 양적인<sup>1)</sup> 방법론과 질적인 방법론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조화롭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어류 명칭의 분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하였으나 민족지학적 조사 방법으로 간략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명하기 어려운 해당 어휘에 관해서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했는데,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의 하위 항목까지 수집할 수 있었다.<sup>2)</sup> 조사는 어류 도감과 그동안의 조사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어류 100종과 두족류, 갑각류, 해조류 50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지역인 부산은 섬 지역인 영도, 가덕도와 해안 지역인 기장군, 강서구, 중구(자갈치 시장)를 조사하였다. 한 지역 안에서의 이러한 지역 구분 외에도 성별과 직종 그리고 연령을 구분해 보다 다양한 제보자들 통해 다양한 변이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섬과 해안 내륙의 차이 외에도 남성과 여성,

---

1) 양적(quantitative) 연구란 통계나 자연 과학적 방법에 의한 연구로서 가설을 세운 후에 검증해 나가는 연역적 접근법을 말하고 질적(qualitative) 연구란 수적인 데이터에 의한 연구 방법과 대조되는 의미로 연구의 과정이나 연구의 완료 후에 가설을 세워 나가는 발견적인 귀납적 접근법을 말한다. 관찰, 참여 관찰, 인터뷰 등이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의 예이다.

2) 제보자는 조사 지역에서 최소한 2대 이상 거주한 50~60대 이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지역 토박이인 어부, 상인으로 한다. 여자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지냈던 사람(본동맥)을 선정한다. 그러나 해당 직종의 경력이 많을 경우는 어린 시절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직업 차이, 세대 차이(50, 60, 70, 80대)를 통해 한 지역 안에서의 다양한 변이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어촌 생활어와 함께 해당 지역의 방언형과 세대, 성별, 직업에 따른 언어도 비교할 수 있었다.<sup>3)</sup> 제보자는 대부분 2대 이상 거주한 지역 토박이를 선정하였는데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부산 지역 어부, 상인 제보자

조사 지역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기타
부산	한보용	남	71 <sup>4)</sup>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어부50년 경력, 어촌 계장 30년 경력(3대째)
	김재염	여	72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기장 시장 어물전 20년 경력
	박해권	남	58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군무원 10년 후 시장 상인 10년 경력
	주순자	여	70	부산시 송도, 중구	하동에서 출생 후 부산 이주, 어물전 46년 경력
	강신일	남	80	부산시 영도	아버지 고향은 진주 의령, 어부 경력 50년
	김상수	남	70	부산시 가덕도	근해 어업, 초망 어업, 현 어촌 계장
	정기동	남	77	부산시 가덕도	거제에서 출생 후 28살에 이주, 어부 45년 경력
	김정철	남	78	부산시 가덕도	할아버지 고향 삼천포, 어부 50년 경력
	이길정	남	71	부산시 가덕도	어부 50년 경력
	김식	남	56	부산시 강서구 신호	어시장 20년 경력, 장사 후 현 어민 후계자
	김문길	남	50	부산시 강서구 신호	어시장 어물전 26년 경력
	김삼명	남	64	부산시 강서구 신호	어업 후 상업, 어물전 20년 경력

3) 이처럼 연령, 성별과 같은 요인이 명칭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이 글에서 다루는 직업군에 중점을 두기 위해 이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4) 2015년 조사 당시의 제보자 나이임을 밝힌다.

### 3. 선행 연구의 검토

어휘는 그 대상이 광범위해 적절한 기술 방법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하위 체계인 계열어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친족 명칭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인체어, 풍명(風名), 동식물 명칭, 어명(魚名), 어업 용어 등이 있었다.<sup>5)</sup> 이중 어류명을 연구한 장태진(1959:116)은 어부 집단에서 다양한 어휘로 발달되어 나타나는 물고기 이름은 이들 집단의 특수어 또는 독특한 직업어를 확립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방언으로 보아야 함을 말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어패류에 대한 연구는 사전에 제시된 명칭을 분류하여 나타내는 분류법을 중심으로 학명과 실제명에 대해 다루어졌다. 장태진(1969)은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사전에 나타난 어촌 지역의 어휘를 대상으로 어부들이 사용하는 물고기 이름 어휘 발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익섭(1980)에서는 ‘골뱅이’가 ‘우렁이, 다슬기’를 지칭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렁이, 다슬기, 달팽이’를 지시하는 지역도 있어 지시 범위가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면서 어패류 명칭에 대한 혼란스러운 실상을 확인한 바 있었다. 또 여찬영(1993)은 사전과 문헌에 등재된 우리말 물고기 명칭을 상위 구별 표지와 하위 구별 표지로 나누어 살펴본 후 이러한 구별 표지의 생산성의 정도를 제시한 바 있고, 윤정옥(2008)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물고기 이름의 형태와 의미 구조를 살펴본 바 있다. 이외에도 김홍석(1995)은 사전에 등재된 한국산 어류 명칭을 명칭에 나타난 접미사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구분한 후 이들의 분포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바 있고, 강영봉(1986), 김순자(2013)는 국어학적으로 제주도 방언의 어류명을 고찰한 바 있다. 한편 국어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아니지만 부경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2009)에서는 명태에 관한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조선시대 해양 환경,

5) 박경래(2005a:125-129, 2005b:172-174)에서는 사회 방언 관련 선행 연구와 역사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어장, 어로 기술, 유통, 발달 등을 고찰한 바 있다. 또 김지숙(2011)은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 강릉과 평창 지역의 어촌과 덕장에서 사용하는 명태 명칭의 분화 양상을 행위자의 관점과 환경에 따라 정리한 바 있고 조숙정(2012)는 문화인류학에서 민족지학이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서해안에 나타나는 조기의 명칭과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기의 민속분류법을 살펴본 바 있다. 또한 김지숙(2013)에서는 울릉도 지역에서 많이 나는 오징어의 명칭을 통해 그 의미 분화 양상과 분화 기제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강영봉(1986), 김지숙(2011, 2013), 조숙정(2012), 김순자(2013)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전상의 등재된 어휘를 중심으로 어류 전반을 다룬 연구이거나 연구 수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어류와 관련한 어휘는 몇몇 연구에서 시도된 바 있으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또 행위자에 대한 다각적인 고려가 많지 않았다. 또한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국어학적으로 어류만을 다룬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 어부와 상인이라는 행위자의 관점에 따른 어류 명칭의 분화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 4. 행위자의 명명 기제에 따른 어휘 유형

어휘는 형태와 의미로 되어 있으므로 그 관계에 의한 방언차를 논의할 수 있다. 형태는 동일하지만 그 의미가 달라 방언차를 보이는 경우도 그러한 예이다. 그래서 개별 어휘의 의미는 그 어휘가 속해 있는 체계나 구조 속에서 정밀하게 파악되어야 한다(이병근 1969b, 1979, 이익섭 1970, 전광현 1973). 그리고 방언 간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차나 의미의 분화를 논의할 수 있다. 또 앞서 이익섭(1980)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골뱅이’가 ‘우렁이, 다슬기’를 지칭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렁이, 다슬기, 달팽이’를 지시하는 지역도 있어 지시 범위가 지역마다 다른데, 이처럼 어류명도 어휘의 의미차로 인한

의미 분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어류 명칭은 지역과 직업에 따라 의미는 동일하나 지시 명칭이 다른 어휘가 존재하기도 하고 지시 명칭은 동일하나 의미가 다른 어휘도 존재해 다소 혼란스러운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과거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방언 어휘의 실상을 보여준다. 이처럼 명칭의 발달 및 분화는 언중들의 문화적 중요성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명칭은 사람들이 환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환경을 지각하고 조직하는 방식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Tyler 1969:6)이다. 따라서 명칭의 분화는 해당 지역의 언어 문화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민의 어촌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통해 한국 문화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동일 지역에서도 행위자가 처해있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또 생업의 비중에 따라 어류의 명칭 인지에서도 차이가 있었다.<sup>6)</sup> 이러한 점에 주목해 부산 지역의 어류 명칭을 두 개의 직업군인 어부와 상인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두 직업군을 선정한 것은 어촌이라는 특성과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지 특성으로 상업의 비중이 높음을 고려한 것이다.

연구자는 이 글의 주된 내용인 행위자의 직업에 따라 분화되는 어류명을 어떻게 제시하는가가 큰 고민이었다. 그 이유는 각 어종에 따라 분화 기제가 다르고, 직업에 따라 명칭의 내용이 달라 이를 동일한 선상에서 제시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고등어는 성어와 치어가, 갈치는 크기의 분화 기제가 먼저 적용되었지만, 가오리의 경우는 색에 관한 분화 기제가 먼저

---

6) 이러한 점이 부각되는 것은 하위어 확장에서 두드러졌는데 바다에 둘러싸인 섬 지역이지만 산촌이 중심인 울릉군 북면의 경우는 일반적인 어패류명 또는 비전문적인 명칭이 주로 나타난 반면 어촌이 중심인 울릉군 서면과 울릉읍의 경우는 세분화된 하위어의 명칭과 전문적인 명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울릉도는 지역에 따라 산촌과 어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어촌 지역은 주생산 활동이 어업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산촌은 밭농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환경적인 점이 어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크지 않은 섬 지역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제보자에 따른 어휘 분화 양상은 어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부산이라는 지역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또 직업에 따라 사용하는 은어로 인해 이들을 일대일로 비교하기도 힘들었다.<sup>7)</sup> 이들 어종을 모두 다루면서 행위자의 직업에 따라 명명의 분화 기제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명명의 방법을 유형화한 후 수량화하는 것이었다. 먼저 어부와 상인들의 명칭에 나타난 명칭 분화 기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 어부: 상태, 색과 문양, 서식지, 성별, 생태 습성, 성질, 어로 방법, 용도, 치어와 성어, 크기, 형태, 계절, 가치, 기타<sup>8)</sup>  
 나. 상인: 맛, 상태, 색과 문양, 생산지, 서식지, 성별, 성질, 용도, 계절, 크기, 형태, 치어와 성어, 기타

우선 우리는 (1)을 통해서 각 직업군에서 사용하는 분화 기제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의 내용만으로는 명명의 기제의 구체적인 차이와 그 내용을

7) 고등어는 1차적으로 성어인 '고대, 고등어'와 치어인 '고가리'로, 갈치는 '실칼치, 대칼치, 애배기'로, 가오리는 '흑가오리, 노랑가오리, 홍어'로 명명되었다. 이 중 가오리는 색에 대한 명명 후 2차적으로 맛 또는 상품 가치로 볼 수 있는 '참가부리, 나무가부리'로 명명되었다.

8)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기타'의 비율이 높다. 이는 어류 명칭의 많은 부분이 외래어(일본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기타에는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행위자인 어부와 상인이 그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는 학명과 그 학명의 방언형(이형태), 그리고 그 어원을 명확히 밝히기 힘든 외래어명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학명 중 '청어'는 원래 청색을 띠는 색에 관한 명칭이고 '고등어'는 등이 굽었다는 형태에 관한 명칭이나 어부들은 이러한 점과 명칭과의 관계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처럼 학명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마다이, 이시가리'와 같은 외래어의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와 같이 명확히 그 어원을 알 수 없는 경우도 기타에 포함하였다.

(예) 지금은 옥돔이라 하는데 옛날엔 옥돔이라 안 했다고 저거를, 옥돔이라 안 하고 머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로 마이 아는 이름인데도 와 이래 생각이 안 나노, 구주나, 이걸 옛날에는 구주나라 그랬다, 구주나, 이게 하도 안 써갖고 잊어뻘어, 이걸, 구주나가 이게 일본 이름일 기야, 옛날에 우리가 구주나를 썼다꼬(상인, 중구)

그러나 예문의 상인의 말과는 달리 옥돔은 일본어로 *アマダイ*(Amadai)로 말해지고 있어 '구주나'가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일본어라면 돌돔을 가리키는 *クロダイ*(Kurodai)와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알 수 없어 분류한 기제에 따른 각각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명명의 빈도를 통해 어느 직업군에서 명칭을 생산성있게 사용하는지와 각 직업군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칭의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 주된 명명의 기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명명의 기제와 이들의 빈도를 통해 분류를 한층 더 세분화하여, 어류의 관계와 나아가 어부와 상인이 어류를 명명하는 명칭의 단계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들 명칭을 유형화한 결과 다음의 <표 2>와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2> 어류 명칭 명명의 기제와 그 빈도

행위자 분화 기제 <sup>9)</sup>	어부		상인	
	빈도수	비율 <sup>10)</sup> (%)	빈도수	비율(%)
크기	33	12.10	15	7.25
치어와 성어	14	5.13	9	4.35
형태	37	13.60	28	13.53
색과 문양	36	13.20	34	16.43
성별	11	4.03	5	2.42
서식지	14	5.13	4	1.93
생산지	0	0	2	0.97
상태	11	4.03	13	6.28
생태 습성(성질)	14	5.13	5	2.42
계절	2	0.73	1	0.48
어로 방법	3	1.10	0	0
용도	0	0	2	0.97
가치	11	4.03	0	0
맛	0	0	13	6.28
기타	87	31.90	76	36.70
총합	273	100.00	207	100.00

9) 분화 기제로 제시된 항목 중 크기는 치어·성어와 색은 형태와도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이 경우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하였음을 밝힌다.

(예) 전어 없지. 작은 거는 세전에라 하거든, 작은 거. 떡전에. 큰 거는. 떡전에. 세전에라고 세전에는 전에 **작고 짙쭈하이** 이렇다. 납땀하이. 떡전에는 편편하이 굵다. 크다. 넓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부는 ‘형태 > 색과 문양 > 크기 > 치어와 성어, 생태 습성, 서식지 > 상태, 가치 > 어로 방법 > 계절, 가치’의 빈도로, 상인은 ‘색과 문양 > 형태 > 크기 > 맛, 상태 > 치어와 성어 > 생태 습성, 성별 > 서식지 > 생산지, 용도 > 계절’의 빈도로 어류를 명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빈도는 각 직업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류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으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각 직업군의 행위자가 처해있는 환경적 요인과 생업의 중요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표 2〉를 보면 어부가 상인들보다는 명칭의 생산성이 더 활발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100여 종의 어류 중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어종 20종을 제외해, 어부는 총 273개가, 상인은 207개가 나타났다.<sup>11)</sup> 빈도의 순서에 포함하지 않은 기타의 내용까지 포함하지 않더라도 어부가 어류 명칭에 있어서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데 이는 하위어 확장도 더 왕성함을 말한다. 즉 외형상으로 보면, 의미 분화의 기제도 비슷하고 항목에서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하위어 확장과 세부적인 항목에서는 차이가 있었다<sup>12)</sup>. 또한 위의 〈표 2〉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방언형은 어부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외래어는 상인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군이 처해진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관련지을 수 있다.<sup>13)</sup> 먼저 분류된 기제의 빈도는 어부의

넓고 크다 이 말이야.(어부, 영도)

10) 위에 제시된 내용은 빈도수를, 아래에 제시된 내용은 ‘총합/해당 목록수=0.000’로 계산한 결과이다.

11) 하위어 확장에 따른 차이로 총합의 차이가 있다.

12) 이처럼 어부와 상인의 분화 기제의 유사성은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류의 가치의 유사함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 직업군에서 분화 기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기제의 우선도에서는 차이가 있었고, 세부적인 항목에서도 어부는 서식지, 생태 습성을, 상인은 상태, 맛을 명명의 기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13) 외래어 사용도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명확한 형태를 살펴볼 수 없고, 대상물과 명칭의 관계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어부보다는 상인에서 외래어 사용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학력보다는 도시, 관광지라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우는 ‘형태’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크기와 치어와 성어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유형이므로 전체적으로는 크기가 가장 높은 빈도로 할 수 있다. 즉 어부는 ‘크기, 형태, 색과 문양’과 같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명명한 후 어획 활동에서 고려되어야 할 어류의 ‘생태 습성, 상태, 서식지, 어로 방법, 계절, 가치’를 명명의 기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상인은 어류에서 가장 명확히 인지되는 ‘색과 문양’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 뒤 ‘형태, 크기, 상태, 맛, 치어와 성어, 생태 습성, 서식지, 성별, 용도, 계절’을 명명 기제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보면 어부와 상인의 주된 명명 기제는 순서상의 어느 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차이가 이들 직업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비록 그 빈도와 순서도에서 확연히 구분되지는 않지만 어부는 어류가 나는 시기인 ‘계절’, 산란기와 관련된 ‘성별’, 어획 활동과 관련되는 ‘어로 방법’, 어류의 ‘서식지’와 관련된 기제가, 상인은 이들의 주고객인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맛, 용도, 원산지’와 관련된 기제가 나타나고 있어 부수적인 명명 기제의 차이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유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4. 1. 명명법의 유형

##### 4.1.1. {크기 및 치어와 성어} 유형<sup>14)</sup>

어촌에서 어류의 크기는 경제적 가치, 어류의 맛과 질, 어획 시기, 치어와 성어의 판단 기준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크기에 관한 ‘왕-, 소-’과 같은 접사, ‘대, 중, 머리’와 같은 명사를 통해 그 명칭을 나타내고 있었다.

(2) 가. 멸치 이거는 머 우리가 중간거는 중살이. 인자 큰거는 대살이.

14)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크기와 치어와 성어의 구분은 서로 관련되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를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이래 나오는 거지.(어부, 기장군)<sup>15)</sup>

나. 매가리 **아주 작은 걸** 우리는 호박씨라고도 하고, 새끼를 호박씨.  
**짜잘한 거, 요거만쿰한 거** 있거든. 그거 젓 담우코 하는 데 좋다.  
(어부, 가덕도)

다. 떡전애가 나고 기양 평전애가 나쥬. 떡전애는 인자 **어중 자체가 크쥬. 큰 거** 보고 떡전애라 하고 고 **다음 그양 전어다 그라지, 평전애는. 평균 인자 크기를 종류가** 그렇쥬.(어부, 영도)

라. 실칼치. **새끼 칼치를 실칼치라** 그래. **실칼치 이지 안 되지. 일지.** 일지. 그건 이야기하면 이지, 삼지, 사지라 이라거든에 이지 같으며 두 개, **삼지** 카면 **중간 거 사지** 카면 **아주 큰 거, 오지**까지 있는데, **대칼치**를 사지, 오지 되면 다 **대칼치라** 그러지.(어부, 가덕도)

마. 대구 종류가 없지. **작은 거**를 총각대구라 그러는데 **새끼 비슷한 걸** 총각대구. 꼴짱대구. 그렇게 얘기하고. 내나 **대구 작은 걸.** 총각대구 하는 기나 꼴짱대구 하는 기나.(어부, 가덕도)

(2가)의 ‘중살이, 대살이’는 중간 크기와 가장 큰 크기의 별칭을 말한다. ‘중살이’는 이 외에도 ‘주바, 중바리’로도 표현하기도 했는데 특정 어종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는 명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sup>16)</sup> (2나)의 ‘호박씨’는 전갱이의 새끼를 가리키는 매가리 중에서도 아주 작은 것을 지칭한다. 너무 작아 호박씨와 같다는 의미로 주로 젓을 담거나 무침회로 사용하는 것이다.<sup>17)</sup> 이를 크기별로 제시하면 ‘호박씨-매가리-전갱이 새끼-전개이-큰전개이’의 순서이다. (2다)의 ‘평전애’는 전어 중 평균적인 보통 크기를, ‘떡전애’는 큰 크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 중, 소-’의 ‘중, 대’ 외에도 ‘평, 떡’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평’은 명사 ‘평균’이 가지는 보통, 평균의 의미를,

15) 그거를 우리가 이름 다 사용 아 하지. 중간 끼 주바라 하는 기. 거는 보통 중바리라 하지.(어부, 가덕도)

16) 이 중 ‘중바리’는 행위와 관련된 접미사 ‘-바리’라기보다는 ‘다리, 부리’의 오용으로 보인다. 방어를 성어와 치어인 ‘야도’와 ‘알야도’로 크게 구분하고 이 중 ‘야도’는 그 크기에 따라 ‘중부리, 대부리, 고부리’로 세분화함을 보여준다.

17)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전갱이’와 ‘매가리’를 동일한 것으로 지칭하고 있다.

‘떡’은 딱처럼 크고 넓다는 의미를 지닌다.<sup>18)</sup> 이 외에도 어부들은 길이가 길거나 크기가 큰 어류의 경우는 크기를 아주 세분화해서 어류를 나타내기도 했다. (2라)의 갈치는 크기가 길이에 따라 ‘일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로 구분하며 숫자가 클수록 그 크기도 더 커지고 상품 가치도 더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치적 구분과 함께 명칭도 나타났는데, 일지를 ‘실갈치’로, 사지를 ‘대갈치’로, 오지를 ‘애배기’로 말하기도 했다. (2마)의 ‘총각대구, 꼴쟁대구’는 새끼보다 조금 더 큰 대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꼴쟁대구-총각대구-그냥대구’로 크기를 구분하였다. ‘총각대구’는 결혼하지 않은 사내인 ‘총각’의 의미와 관련해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아 작음 또는 미성숙의 의미를 지닌다.<sup>19)</sup> 이처럼 크기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호박씨나 사람과 관련된 명칭을 통해 표현하기도 했다. (2)에서 사용되는 ‘중살이, 대살이, 호박씨’와 ‘일지’, ‘평, 떡’ 등은 특정 어류를 위한 명칭이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어류에 사용할 수 있는 명칭과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상인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타났는데 (3)에서 볼 수 있다.

- (3) 가. 세갈치 **짤짤한** 세갈치도 있고.(상인, 기장군)  
 나. 새끼는 풀치라 그래, 풀치. **꾸이용이 안될 정도로 작은 거는 풀내미 난다꼬** 풀치라 그러고 그 나머지는 갈치라 그러지. 크다고 뭐 이렇게.(상인, 중구)  
 다. 상갈치가 있고, 고 다음 요 갈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갈치는 지느러미가 커요. 네, 크기도 엄청 크지요.** 한 번 잡아 봤거든요. 묵진 않아요, 사람들이. (상인, 기장군)  
 라. 저가 뿔아 먹는 거는 내내 찌르미, **짤 거** 지르미, 짤지르미. 그 다음에는 **마 중멸치, 대멸치**이라대.(상인, 기장군)

갈치는 크기가 큰 것은 ‘대갈치’ 또는 ‘큰갈치’로, 그리고 작은 갈치는 (3가)의

18) ‘떡’은 크기 외에도 어류의 성질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19) 이와 유사한 명칭인 ‘총각붕어’가 민물고기인 붕어에서도 나타났다.

‘풀치, 세칼치’로 말한다. ‘세칼치’는 가늘고 작다는 의미인데 ‘細’와 관련된 명칭으로 보인다. 이 중 (3나)의 ‘풀치’는 작아서 ‘풀내가 난다’는 의미로 명사 ‘풀’과 접사 ‘-치’로 볼 수도 있고 접두사 ‘푹-02’(사전상: 제주)의 방언 ‘풀-’에 접미사 ‘-치’가 결합한 것이나 접두사 ‘풀’에 어떤 대상을 가진 물건을 말하는 의존명사로도 볼 수 있다. ‘풀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풀방어, 풀갈치’의 ‘풀-’을 ‘미숙한’, ‘깊지 않은’의 뜻의 접두사로 본다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칼치의 새끼를 나타내는 ‘풀치’의 ‘풀’ 역시도 접두사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sup>20)</sup> 이 경우 ‘접두사+의존명사’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다, 라)를 통해 크기를 나타내는데 ‘대, 중, 소-’ 외에도 명사 ‘상, 중, 하’가 같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중소’와 ‘상중하’로 어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상인들이 어류를 분류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인데 이로 인해 크기 명칭에 두루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멸치와 갈치가 크기에 따라 명칭이 세분화되어 나타난 것은 멸치는 그 크기에 따라 젓갈용, 반찬용, 횡감용으로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고, 갈치는 그 크기에 따라 시장의 상품성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점이 크기에 대한 명칭의 발달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또한 해당 지역의 주어종이 아닐 경우에는 이들을 관형사형으로 표현한 ‘짤(잔)놈, 굵은놈’과 같이 통칭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어부는 크기를 인지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수치적 길이와 그 구분이 체계적이었다. 이는 어획 후 어류를 분류, 용도를 구분하는 단계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수치적 명칭과 함께 대중소와 관련된 명칭도 나타났다. 반면 상인은 일반적인 소비자와 비슷한 ‘대중소’로 크기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애배기, 소똥배기, 총각대구, 호박씨, 평전애’와 같은 표현은 어부 집단에서만 찾아볼

20) 자세한 내용은 후속 논의로 제시하겠다. 한편 어부, 상인 모두에서 ‘풀치’ 외에도 ‘풀갈치, 풀방어’ 등의 용어가 나타났다.

(예) 가. 하는 기 따로 있고 다르죠. 풀방어라 그래요. 풀방어.(어부, 영도)

나. 머 이 동네에서는 작은 거는 풀갈치다 하고 머 큰 거는 애배기다 하고 이랍니다. 큰 거를 애배기, 작은 거를 풀갈치 그렇게 얘기하죠.(어부, 영도)

수 있었다. 즉 크기에 관해 상인보다 어부가 훨씬 세분화되고 특수화된 명칭의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크기에 관한 다양한 어휘가 나타난 것은 어획물의 크기가 어부는 유통 과정에서, 상인들의 판매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기 때문이다.

#### 4.1.2. {색과 문양} 유형

어부들은 크기 외에도 색깔과 문양으로 어종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4)가 여기에 속한다.<sup>21)</sup>

- (4) 가. **(노란색 가자미를 가리키며) 노랭이** 또 나오겠지. 머.(어부, 가덕도)  
 나. 인자 우리 그 말로 감시. **꺼면 거는 감시, 감시.** 우리 여계서는(어부, 기장군)  
 다. 요래 생겼는 것은 우리가 여계서 보면 도다리도 이런 형태가 있고 또 인자 우리 여계 말로 멍가리라 카는 게 있어요. 거는 인자 여계 그기 요사이는 상당히 힘이 든는데 **여계 빨간 점, 거면 점 이레 점이 있어요.** 멍가리라 카는 것이 있고, 배풍에도 고런 게 있어요. 고런 게 있어가 멍가리라는 게 있고, 가자미.(어부, 기장군)<sup>22)</sup>  
 라. 우리 말로 **범개이, 범개이** 카는 거. 노란 거, **노란 거.**(어부, 가덕도)  
 마. **홍태는** 그거 말라가 **빨가이 \*\*일 때 가운데서 말랐는 거.** 동태는 그냥 말란 거고.(어부, 영도)  
 바. 그 **줄둑을** 저거 뭐라 카는 동 모르겠다. **줄이래이래야.** **여넉[덜]토 백이.**(어부, 가덕도)

(4가)의 ‘노랭이’는 노란색 가자미를 말하는 속명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자미는

21) ‘색’ 또는 ‘문양’으로 예문을 구분하여 제시하기에 문양에 대한 예가 많지 않았고, 어류의 외형에서 나타나는 이들 유형이 서로 관련이 있어 함께 제시하였다.

22) 이기 멍가리라는 게 있습니다. **몽가리.** 멍가리라는 거는 **도다리과에서도 고기가 제일 맛있는 고집니다.** 그 멍가리라는 거는 **점이 팍팍 있어요.** 대형인 아주 큰 거도 작은 거도 있는데 그 멍가리가 살이 엄청 좋았습니다.(어부, 영도)에서는 ‘멍가리’가 ‘몽가리’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위 어종의 종류가 가장 많은 것 중 하나에 속하는데 그래서 어부들은 ‘노랭이’와 같이 구분되는 체색을 통해 명명하기도 했다. (4나)의 ‘감시’는 감성돔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감성돔은 몸 빛깔이 금속 광택을 띤 회흑색이어서 전체적으로 검게 보이는데 이로 인해 생긴 명칭이다. (4나)의 ‘깜시, 감시’라는 이름도 ‘검다’의 의미와 관련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어부들은 ‘검은돔’으로 불리다가 ‘감성돔’으로 이름이 변하게 되었음을 말하기도 했다.<sup>23)</sup> 그러나 이들 명칭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다)의 ‘멍가리’는 광어보다 맛있고 살이 많은 고기로 비싼 어종이다. 지느러미와 배 흰색 몸에 둥근 검은색 반점을 가지고 있는데 학명으로는 범가자미로, 다른 지역에서는 ‘점도다리’라고 부른다.<sup>24)</sup> 이처럼 ‘범가자미’라는 학명과 달리 어부들은 가자미를 ‘도다리’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어류의 명칭으로 인한 의미 상승을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자미보다는 도다리가 일반적으로 더 비싸고 좋은 어종이라는 인식으로 가자미를 도다리로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어부뿐 아니라 상인에서도 나타났다. (4라)의 ‘범개이’는 ‘범가자미’를 말하는 것으로, ‘범개이, 범도다리’로 나타났다. ‘범개이’는 표범을 의미하는 ‘범’에 광어의 옛이름인 ‘과, 가이’가 결합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 이처럼 ‘범개이’, ‘범돔’과 같이 이름에 ‘범’자가 붙은 것은 황색 바탕에 나 있는 검은색 줄무늬가 호랑이의 무늬를 닮았기 때문이다. (4마)의 ‘홍태’는 살아있는 명태가 아닌 붉게 익힌 명태를 말한다. 그 붉은 색으로 ‘홍태’라고 한다. 이러한 명태의 명칭은 명태의 상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색과 문양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4바)의 ‘여덥토백이’는 돌돔을 가리키는 것인데, 다른 말로 ‘줄돔’이라고 한다. 돌돔은 어릴 때는 몸체에

23) 감성돔을 가리켜 일본어로 ‘구로다이(クロダイ)’라 하는데, 이는 일본어의 검다는 말 ‘구로’에 돔을 뜻하는 ‘다이’가 붙은 것이다.

예) 참돔이라 하고, 구루돔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일본말이라. 꺼먼색이야. 색깔이 검게 나오는. 일본말. 바닷가기 때문에 일본말을 마이 썼다고. 바닷가는 지금도 일본말이 많단니까, 고기 이름이. 구루돔. (상인, 중구)

24) 영어권에서도 몸에 점이 있는 것을 상징하여 spotted halibut이라 부르며 일본은 ‘호시게 레이’, 중국은 ‘원반성어엽’이라 한다.

뚜렷한 일곱 개의 검은색 가로 줄이 있다가 성장하면서 점차 희미하게 되어 은회색이 된다. 부화해서 얼마 되지 않은 돌돔은 몸에 있는 뚜렷한 검은색 가로 줄 문양으로 인해 관상용 열대어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덟토백이’는 일곱 개의 줄로 몸통이 여덟 개로 나누어진다는 의미로 생긴 말이다. 다음의 (5)는 상인들에게서 나타난 색과 문양 관련 명칭이다.

- (5) 가. 떡칼치 색깔 까만 거. 뽕뽕뽕뽕한 거는 은칼치.(상인, 기장군)  
 나. 함 보자. 색깔이 빨가이 빨간납새미 되겠네.(상인, 강서구)  
 다. 잿방어. 갈색 좀 떠는 게 잿방어, 잿방어. 노란 그기 아이고 쪼끔 연한 갈색이죠.(상인, 강서구)  
 라. 노란가오리. 색깔 노래이 노란가오리 걸는데. 뒤에 좀 보자 노랑는 가. 침 있는 거 보이 노란가오리 맞네. 침 있다 아입니까. 침이. 꼬랑데기 침 있다 아이가. 노랑가부리 카면 된다.(상인, 강서구)  
 마. 흑도미도 있고. 검은 건 흑도미, 참도미. 그런 식으로. 도미는 옛날에도 도미라 그랬다. 도미라 그래, 도미. 도미.(상인, 중구)  
 바. 옛날에 이거는 복재이. 복재이가 내가 잘 안다. 제일 최고 좋은 거 참복재이 그러고, 고 다음에 밀복재이가 있고, 고 다음에 또 일룩덜룩한 까치복재이가 있고, 고 다음에 청복재이라고 그건 우리 나라에서 잘 안 나는데 푸른 거 청복재이라 있고 고 다음에 줄복재이, 줄복쟁이가 있고, 쨌깼한 거 충무 가면 마이 난다.(상인, 중구)  
 사. (민어를 가리키며) 아이 망사보다 다른 거 있는데 하얀 거.(상인, 기장군)

검은색의 갈치를 말하는 (5가)의 ‘떡칼치’는 어부 집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명칭이다. 그 이유는 어부가 갈치를 잡을 당시는 은색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즉 칼치는 모두 은색을 지니는데 대량으로 어획하는 트롤의 경우는 어획 과정에서 광택을 내는 은색이 다 사라져 그래서 떡색을 띤다고 한다. 즉 낚시로 잡은 것은 은색을, 트롤로 잡은 것은 떡색을 띠게 되는데 상인들은 어류의 초기 단계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어로

과정과 관련된 명칭으로 어류의 유통 단계에 따른 행위자의 명칭 차이를 보여준다. 그 결과 상인은 어부보다 더 많은 색 명칭인 ‘은칼치, 떡칼치’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5나)는 ‘빨간납새미’는 붉은 색의 가자미를, (5다)의 ‘젓방어’는 젓빛을 띠는 방어를 말한다. 이 중 ‘빨간납새미’는 ‘홍가자미’ 또는 ‘아까가레이(アカガレイ)’를, (5라)의 ‘노랑가부리’는 노란색을 띠는 가오리를 말한다. 이 중 가오리는 색가오리가 있어 색에 따른 하위 명칭이 세분화되어 나타났는데 홍어, 노랑가오리, 흰가오리, 목가오리 등도 찾아볼 수 있었다. (5마)의 ‘흑도미’는 검은 흑돔을, (5바)의 ‘까치복재이’는 얼룩덜룩한 무늬를 지닌 복을, ‘청복재이(청복쟁이)’는 푸른 복을 말한다. ‘복쟁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복어의 한 종인 ‘흰점복’을 지칭하는 어휘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복어의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청복재이, 줄복쟁이’의 ‘재이, 쟁이’는 사람에 붙는 접미사 ‘-장이’로 볼 수 있다. (5사)의 ‘망사’는 표면의 문양이 망사(그물) 모양으로 생긴 민어 또는 이와 유사한 어류를 말했다. 상인들은 ‘이건 망사. 망사 글기도 하고 민어 글기도 한데 이거 그림을 보통 사람은 못 알아본다. 내라 똥게 알아보지.(상인, 중구)’와 같이 다른 상인에서도 대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4,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인들은 해당 어류를 단순히 색, 문양의 유사성으로 명칭을 나타내는 반면 어부들은 그들만의 약어, 특수어를 사용해서 색과 문양을 표현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점은 어획 과정과 관련되는 어류의 지식적인 면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 4.1.3. {형태} 유형

어부들은 물고기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의 형태와 관련해 명명하기도 했는데 다음의 (6)을 살펴보자.

- (6) 가. 칼치를 잡으면서 옛날에 인자 여계에 **뿔은 점이 있었어요**. 그걸 뒤라 카냐면 칼치에 대해 소똥배기라 했어요. 우리 여계 낚시를 잡을 적에 **가을 늦게 여계 인자 이런 데 여계에 이 색깔이 고뎌**

**되면 소똥맨치로** 이 소똥배기라 캐가 소똥배기, 소똥배기 하면 이거는 굉장히 맛이 이거하고 또 틀래요, 칼치맛하고, 이건 크고 살이 많고 맛이 있지. 가을 되면 또 이기 기름이 차가지고 엄청난 게 맛이 있어.(어부, 기장군)

나. 참조구 종룬데 부시는 좀 이래 참조기가 배가 이래 좀 나오고 그런데 부시는 대가리만 크고 몸 자체가 훌쩍해. 부시도 조기 종룬데. 부시, **강다리**. 강다리. 그 다음에 **젓 담는 게 깡치**.(어부, 가덕도)

다. 양기. **양기는 요새 상어 양기 눈이 디게 멀제**. 그 양기 말하자면 양기 **눈 세이**란다. 대게 눈이 안 보이드나. 참사이. 사아도 여러 종류다.(어부, 영도)

라. 새끼는 저저라 한다. 이 머꼬, 새끼는, **고래 새끼**는. 저저 머꼬, 고래 새끼 이름이 안 돌아가네. 저저 보면 고래 이 말고, 저 바다 나가면 마 테레비 안 나오드나. 페로 모아 가이고 이래 가제. 그기가 곱시기, 곱시기다. 많다. 정 그거는. 전에 갑배로 일본 가는 거 저 곱시기 때 탈 나가이고 배 절단났다. 아이가.(어부, 영도)

(6가)의 ‘소똥배기’는 갈치에 붉은 점이 있는 갈치를 말하는 것으로 생김새가 붉은 소똥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소똥이 박혀있다는 의미인 ‘소똥+박+이’로 본다면 색과 문양, 크기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어류는 늦가을이 되면 기름이 차서 맛도 좋고 크기도 커지는데 이로 인해 생긴 표현이다. 명사 ‘소똥’에 ‘어떤 성질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배기’가 붙은 형태인 ‘소똥배기’는 소똥처럼 크고 붉다는 의미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상에 어류를 비유한 표현이다. (6나)의 ‘깡치’는 조기 중 부세를 말하는 것으로 머리만 크고 몸이 마른 형태로 생긴 말이다. 이는 센 느낌을 주는 ‘깡-’의 의미보다는 형용사 ‘깡마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접두사 ‘강-’의 ‘마른’ 또는 ‘물기가 없는’의 센 말 ‘깡-’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깡치’의 다른 표현인 ‘강다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 접두사 ‘깡-’에 어류에 붙는 접미사 ‘-치’로

볼 수 있어 앞서 다른 ‘풀치’와 함께 구성상의 문제가 있다. ‘깡’에 대해서는 어류의 구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6다)의 ‘양기’는 양쪽 눈이 멀리 떨어져 있는(눈 세이) 상어를 가리키고, (6라)의 ‘굽시기’는 ‘굽았다(굽었다)’와 관련되는 말로 등이 굽은 고래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다.<sup>25)</sup> 이들은 모두 어류의 모양, 형태와 관련된 표현이다. 한편 상인들은 어부들보다 더 일반적인이고 주변적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음을 (7)에서 알 수 있다.

- (7) 가. 찌고기 응, 그래. 주객맨쿠 생겼다. 그래서 주객, 여도 주객이 있네. 이거도 주객이네.(상인, 기장군)  
 나. 이거는 벤찌도 아이고, 이거 모르겠다. 벤치 또 나올랑가? 쥐치.(상인, 기장군)  
 다. 상어는 마 개상어도 있고, 참상어도 있고, 꾸빠리도 하고, 꼬빠리도 꼬빠리.(상인, 기장군)

쥐치는 쥐를 닮았다는 표현 외에도 다양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7가)는 쥐치가 밥주걱과 같은 모양으로 생겼다는 의미에서 ‘주객’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쥐치를 나타내는 표현은 (7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7나)의 ‘벤찌’는 쥐치를 가리키는 말로 연장인 벤치와 유사한 모양으로 생긴 말이다. (7다)의 ‘꾸빠리, 꼬빠리’는 등이 굽은 상어를 가리키는 말인데 어종을 가리지 않고 고래와 상어에서 모두 나타났다. 이처럼 상인은 형태의 유사성을 지니면 특정 어종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른 어종에도 동일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본인이 취급하는 어종 외에는 어류에 관한 지식이 많지 않음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5) 한편 이와 비슷한 표현은 어부에서도 나타났음을 다음의 예로 알 수 있다.

(예) 가. 굴살이 묵도 안 해오, 기름이 많이 나가 뱀시가 나서 누린내가 나가.(어부, 가덕도)  
 나. 상어 중에서, 이는 상어에 속하는데 상어 중에 상어가 여러 질이 있지. 우리 여계 말로서는 양지기. 양지기는 저기 눈이 여 양쪽에 이래 이래가주고 멀리 생겼는 거.(어부, 기장군)

#### 4.1.4. {상태} 유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태를 구분하는 명칭인 ‘생태, 복어, 황태, 동태, 꼬다리’는 건조 상태에 관한 명칭이다. 이처럼 어류는 건조 상태, 어류의 신선 상태, 표면 상태에 관한 명명 기제가 명칭에 나타나기도 했는데 다음의 (8)이 여기에 속한다.<sup>26)</sup>

- (8) 가. 엔날에 정난 수역 가면 꺼칠이 있제? 강어보다 맛있다. 꺼칠도다리  
**아 있드나. 껍질 꺼치리한 거.**(어부, 영도)  
 나. 이 또 저저 달고기라 한다. 달고기 모양 그거 한다고. 달고기.(어부, 가덕도)  
 다. 이건 납새미, 저 도다리네. 납새미하고 도다리하고 조금 틀래지. 납새미는 도다리는 돌뱅하고 그거하고 납딱지고기. 납딱하다고 납딱지고기. 요거는요?(어부, 가덕도)  
 라. 크기가 두툽이는 크고 개상어는 작고 이렇습니다. 거 인자 고기는 이래 같은 비슷한데 크기가 다르죠. 종 자체가 다르죠. 개상어는 작은 거고 두툽이는 뚜껍고 큰 거고.(어부, 영도)

(8가)의 ‘꺼칠이, 꺼칠도다리’는 꺼끌가자미, 거칠가자미를 말하는 것으로 겉면이 거친 어류의 상태와 관련된 표현이다. 어류의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표면의 성질로 인해 꺼끌가자미를 ‘꺼칠이’로 지칭하기도 했다. (8나)의 ‘달고기’의 ‘달’은 닭의 경상도 방언형으로, (8가)와 마찬가지로 어류의 표면이 닭살과 같고, 닭과 같은 모양을 지녀서 나온 명칭이다. (8다)의 ‘납딱지고기’는 가자미와 같이 납작한 모양을 지닌 쥐치를 말하고,<sup>27)</sup> (8라)의 ‘두툽이’는 꺼칠꺼칠한 표면을 지닌 두툽상어를 말한다. ‘두툽이’는 개상어와 형태는 유사하지만 두툽

26) ‘동태, 흥태, 꺼칠이’의 예는 상태에 대한 기준이 달라 실제로는 세분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흥태’와 같은 예가 많지 않고, ‘동태’와 관련된 건조 상태 예도 이미 일반화된 것이어서 이를 함께 다루었음을 밝힌다.

27) 다음의 이와 관련된 예이다.

(예) 납새미는 납딱하이 그거라. 짚쭉하지. 도다리는 똥글똥글하고, 둥글고. 납새미 길쭉하이.(어부, 영도)

뼈의 일부 또는 전체가 딱딱한 뼈로 되어있어 개상어보다 크고 두꺼운데 이 점에 연유한 명칭이다. 의인화해서 표현한 ‘두툼이’는 제보자에 따라 ‘개상어’와 동일한 것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8가)의 ‘꺼칠도다리’와 같은 표현은 상인들에서도 나타났는데 (9)에서 살펴보자.

- (9) 가. 이거노 뽉찌라 아 하나. 우리 촌말로, 뽉찌, 복은데 뽉찌라 한다.  
 뽉찌도 저저 저저 꺼칠뽉찌, 꺼칠뽉찌, 참뽉찌. 그래 아 하나.(상인, 기장군)  
 나. 개상어는 요매한데 껍데기가 세다.(상인, 기장군)  
 다. 이거가 꺼칠 껍데기 뻬기는 거 이거 머꼬, 꺼칠도다리.(상인, 기장군)

어류는 그 상태에 따라 겉면이 거칠거칠한 복어는 ‘까칠뽉찌’로, 겉면에 가시가 있는 복어는 ‘가시뽉찌’로 나타났는데 (9)의 ‘꺼칠뽉찌, 개상어, 꺼칠도다리’는 모두 어류의 표면 상태에 따른 명칭이다.<sup>28)</sup> 이 중 (9다)의 ‘꺼칠도다리’는 ‘꺼칠 껍데기’에서 알 수 있듯이 거친 껍질로 나타난 명칭이다. 어류는 그 표면의 촉감적인 특성, 또는 그 모양의 상태, 가공법에 따른 상태가 명명의 기제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어류를 인식해 명명하는 것은 촉각적 인지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시각적 인지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을 손의 촉감을 통해 해당 어류를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4.1.5. {서식지} 유형

어류는 그 종에 따라 크게 바다와 민물, 갯벌에 사는 종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점은 어류의 서식 환경 외에도 어종의 차이, 어로 도구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명명 기제로 사용되고 있었다. 서식지에 관한 구분은 크기, 색, 형태에 비해 단순해 어휘가 많지는 않았다.

- (10) 가. 이게 인자 경북, **경북**, 경북도다리.(어부, 기장군)  
 나. 도다리..... 도다리도 납새미 종류가 포항가리, 또 머신 도다리고, 많다. 포항가리, 포항가리 그거는 이월달에부터 삼월달에 알아 마이 배입니다. 그래가 **강원도 쪽에서 아주 마이 납니다**. 그 납새미가, 강원도에서 마이 나는 거. **포항에서 주로 이 형태에 시판이 마이 되다 보니까 포항가리라** 그러는데, 다른 동네보다도 **다른 고장보다도 인자 포항에서 이게 마이 난다** 이래가주고 포항가리.(어부, 영도)  
 다. **암수 납딱지고기도 있지요** 그거는 인자 우리 수수한 말 **토백**이다 그러는데, 왜 토백이 하나 **납딱한 찌고기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멀리 안 가죠**, **하내의 자기의 그 살수 있는 위치만 되면은 거서 땀돈다** 이래가주고 사계절을 거서 **크고 이란다고** 토백이라 그러는데 납딱지고기.(어부, 영도)  
 라. 이진 바다찌고기, 가새찌고기는, 우린, 이게 아까 바당찌게기 아이가. 이 찌고기 맛있는데, 이 바당찌래기 아기는, 돌끝에찌래기, 가새찌래기, 가에 바당 한 바당찌래기고 거는, 이진 가에찌래기, 그네, 그네.(근해) **여여여 육지에 가자분 데 있는데 물에서 나오는**.(어부, 영도)

(10가)의 ‘경북도다리’는 경북 지역에서 주로 나는 가자미를 말한다. 이러한 ‘경북도다리’는 주로 회나 국으로 먹는 용도인 ‘노란가자미’와 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었다. (10나)의 ‘포항가리’는 제보자의 말처럼 서식지는 강원도이지만 주로 포항에서 많이 유통되어 나타난 명칭이다. 어류의 유통과 관련된 명칭 때문인지 ‘포항가리’는 상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10다)의 ‘토백이’는 쥐고기 중 납작하고 등글게 생긴 것으로 외래종이 아닌 순수 국내종인 ‘납딱지고기’를 말한다.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다는 의미에서 토박이로 표현한다. 앞서 ‘포항가리’와 같이 지역명을 명기한 명칭인 ‘부산납딱지’라고 하지 않고 사람과 동일하게 의인화해서 표현해 부산 토박이로 지칭하고 있었다. 이러한 취치는 부산에서 (10라)와 같이 ‘찌고기, 찌게기, 찌래기’로 나타났다. (10라)에서 나타난 ‘바당(바다)찌게기, 가새(가에)찌래기, 돌끝에찌래기’는 모두 바다쥐고기,

가새쥐고기, 근해쥐고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주로 서식하는 공간에 따라 명칭이 분화된 것이다.

(11) 가. 그리고 또 포항가리라는 기 있고. **포항서 나는 건데 지금 딱 철에 맞있는 게** 또 있고 고거는 고때라야 되고 좀 있으면 누렁내 나서 맛이 없어 못 먹어. 살이 통통해. 똑 요래 생긴 게 이기 포항가리.(상인, 중구)

나. 이기는 가재미네, 납새미. **이거도가재민데 납새미라**, 납새미. 납새미도 참납새미 있고, 포항. 포항납새미. 포항납새미라 하드 라꼬. 이거는 내내 저거 이게 저거 아이라. 물까재미기라. 물까재미 적어라.(상인, 기장군)

다. 포항도다리. 우리 저번 여름에. 근데 저 **포항쪽에 무조건 다 가자미라**. 납딱한 건 가자미라니까.(상인, 강서구)

앞서 우리는 (10나)의 ‘포항가리’가 주로 포항에서 많이 유통되는 가자미임을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를 (11가)의 ‘포항서 나는 건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포항에서 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상인의 경우 어류의 서식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명을 어류의 서식지로 잘못 이해해서 의미가 변이된 것이다. 이러한 ‘포항가리’는 (11나, 다)의 ‘포항납새미, 포항도다리’로도 나타났는데 ‘가자미, 도다리, 납새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인의 경우 지역명 외에 서식지에 대한 명칭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역시도 언어 외적인 요인인 환경과 관련을 보여준다.

#### 4.1.6. {생태 습성} 유형

어류는 일반적으로 그 성질에 따라 ‘개-, 참-, 물, 기름’을 넣어 표현했다. ‘물치, 기름치’와 같은 명칭은 이런 성질을 가진 물고기를 통칭하는 의미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러한 통칭 외에도 어류를 좀더 구체화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다음의 (12)를 통해 알 수 있다.

- (12) 가. 우리 여는 이걸 보고 아 깍다구, 깍다구라 카는데, 큰 거 보고  
 농어다 그라고 작은 거는 깍다구다 그라고, 그렇죠, 그렇죠.  
**성질 드러워가 고기 울릴라 하면 성질 빠바박하다가 마 죽어빠리  
 고.**(어부, 영도)
- 나. 이케는 고등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고시를 왜 고등고씨라  
 하나면 가에 들으 옵니다. 바로 가에 들으 와가주고 난설류 들어  
 오겠지요, 거기, 가에 둘러 가주고 고동 곁은 가에 붙어 있으면은  
그런 걸 막 자아 먹어요, 그런데 왜 고등고시라 그러냐면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한대로 가에 바로 들으 와가주고 고동을  
마이 잡아 묵으니까 해조류도 먹고.(어부, 영도)
- 다. 가을에는 가을승어라 그러고, 가을에 명승어라 그러기도 하고,  
가을철엔 굶다 보니까, 역수로 크고 몸이 뚱뚱하기 살이 썩어가고  
둔해.(어부, 가덕도)
- 라. 풍치라 카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멧칼치라 카는 멧칼치, 이래  
아주 큰 게 있는데 태풍에 불면은 거기 한 번씩 나타나는데, 이래  
 보면 빠가 안에 싹 다보이, 그거를 보고 이야기 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칼치보다 훨씬 더 크지, 육지에 날라 오기 때문에  
멧칼치.(어부, 가덕도)

(12가)의 ‘깍다구’는 작은 크기의 농어를 가리키는데 ‘깍다구, 깔따구’라는 말은 고기의 성질이 좋지 않아 나온 말이라고 한다. ‘깍다구’는 경상도에서 약착같은 성질이나 기질, 오기를 말하는 ‘깡다구’와 관련지을 수 있을 것 같다.<sup>29)</sup> (12나)의 ‘고등고시’는 ‘고동가오리’를 말한다.<sup>30)</sup> 이 가오리는 고등의 모양과는 관련이 없고 생식 환경과 관련이 있다. 즉 고등이 많은 바닷가에서 고동을

29) 이외에도 ‘돌-’과 결합한 ‘돌깍다구’도 나타나기도 했다.

(예) 이 솜뱅이다 하는 건데 표준말은 솜뱅이, 우리는 돌깍다구라 그랍니다, 깍다구, 솜뱅이 그거는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좀 안 좋게 하지. \*\* 놓으면 술라 그러고 수이 나면 대개 아픕니다.(어부, 영도)

30) 다음이 여기에 해당하는 예이다.

(예) 가오리도 우리가 마이 잡았는데, 가오리도 여러 종류지, 이걸 고동가오리라고, 이게 이 인자 다른 가오리는 여계에 이런 식이 되어 있지만 요거는 딱 고동 같이 생겼다고, 침이 엄청나게 겁이 나오.(어부, 기장군)

잡아먹고 서식한다는 의미에서 나타난 명칭이다. ‘고등고시, 고등고씨’라는 말은 김씨, 박씨와 같이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2다)의 ‘멍숭어’는 ‘가을숭어’와 같은 말로 가을철 숭어가 크고 기름져 몸이 둔하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다. 어부는 어류의 맛을 나타낼 때는 ‘가을숭어’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멍숭어’라는 말을 사용해 둔한 모양새와 굵뚱 행동을 부정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의미만을 고려하면 ‘멍칭하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무태상어(홍상엇과의 바닷물고기)의 경남 방언인 ‘멍다리’라는 표현이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표준국어대사전』에 ‘멍침지’라는 표현이 ‘개03’의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만을 추측할 뿐이다. 한편 (12라)의 ‘멧칼치’는 산을 닮았거나 산처럼 큰 것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니다. ‘뫼(뫼, 山)’는 육지(뫼)로 올라오는 칼치의 생태 습성 때문에 ‘멧칼치’라고 한다. 즉 ‘멧칼치’는 다른 말로 ‘산칼치’라고도 하는데 갈치가 지닌 외형적인 속성이 아닌 갈치가 지닌 생태적인 부분 속성으로 인해 생긴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큰 갈치는 ‘대칼치’로 지칭하는데 대칼치보다 큰 ‘멧칼치’는 고기가 너무 커서 힘이 없고 육지로 올라오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을 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처럼 해당 어류의 생태 특성을 아는 것은 외형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것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어류의 성질, 생식 환경 외에도 주변에서 들은 기존 정보로 인해 해당 명칭을 인지하게 된다. 한편 (12)의 생태 습성 표현은 상인들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상인들이 어로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이다.

- (13) 가. 납새미가 까자민데 그니까 쉽게 말해가주고 포항에서 말하는  
 게 물가자미하고 참가자미 이란 식으로 인자. 납새미도 참납새  
 미 있고, 이거는 내내 저거 이거 저거 아이라. 물까재미기라.  
 물까재미 적어라. **물처럼 무르거든**.(어부, 강서구)  
 나. 고래가. 여 말로 이걸 보면은 물치 같애요, 물치, 이 날개가  
 없는 거 보니까 물치 같애요.(어부 기장군)

상인들은 주로 ‘물’을 통해 어류의 습성을 나타냈다. (13가)의 ‘물가자미,

물까재미기)와 (13나)의 ‘물치’는 모두 명사 ‘물’과 관련된 것으로 육질이 참가자미에 비해 단단하지 못해 물과 같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일본어 ‘미즈가레이’, 즉 ‘물가자미’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미주구리’와도 관련된다. 그래서 물기가 많아 주로 물회로 많이 먹는다고 한다. 이 외에도 가자미 중에 물처럼 흔하게 많다는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물’이 지닌 의미의 추상화로 어류의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sup>31)</sup>

#### 4.1.7. {맛} 유형

어부들은 맛에 관한 명칭이 발달하지 않아 특정 어종에 대한 명칭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맛이 없는 고기는 (14)와 같이 ‘똥고기’로 통칭해서 표현했다.

- (14) 가. **맛이 없고 침이 많아.** 이거 무슨 고기다 이게 옛날에 저 침이가 똥고기라꼬 옛날 우리가 잡았는데.(어부, 영도)  
 나. 이 고기는 우리는 이 고기를 가 똥고기다 했습니다. 똥고기. 옛날에 이 동네에도 가에 마이 분포 돼 있었어요. 이기 똥고기 수이나 노면 대게 아프다 그라지예. 이기 똥고기입니다. 똥고기라 그라쥬. 지금 낚시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똥고기다 아 하고 먼 고기라 하든데. 이 고기가 **이면수. 강원도 속초 가면 이게 마이 나는 고기쥬. 이거 꾸어 가주고 이거 꺾테기를 가삼 사먹으면 왕인테 진상까지 했다는 고긴데.**(어부, 영도)

(14가, 나)의 ‘똥고기’는 쓰임새도 없고 맛도 없어 가치 없는 고기를 말하는 것으로 똥처럼 소용이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똥고기’는 이면수 외에도 못 먹는 고기를 통칭해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14)의 제보자의 말을 보면 강원도 지역에서는 왕에게 진상도 했다는 말이 있어 맛과 어류의 가치에 관한 지역적인 차이를 알 수 있다. 한편 상인들은 고객인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31) 가자미는 아니지만 오징어에서도 ‘그거 물에서 좃어 담은 거를 물오징개제?’라는 부분이 있어 물처럼 흔하다는 의미를 추정할 수 있다.

것이 맛이라는 점으로 다양한 맛 표현을 찾아볼 수 있었다.

(15) 가. **맑에 그거는, 맑에갓고 다 몰라. 나무가부리, 주로 나무까부리라**  
 그라고 하는 기고 가부리는 종류가 많아요, 그건 내가 잘. 참가부  
 리, 나무까부리, 또, 일단 참가부리가 있고, 나무가부리가 있고,  
 맛도 좋고 좋은 길 참가부리라 그랬고, **나무가부리는 맛이 얹고**  
**빠둥빠둥하게**. 그건 수눔 암눔 구별이 됐다. 수눔은 포가 난다.  
 이래 보면, 근데 그거를 특별히 머 암눔이네, 수눔이네 카고  
 사먹는 거 뿐이 없었지. 특별히 이름은.(상인, 중구)

나. 지금도 암컷, 수컷 안 하고 참고등어하고 참고등어라 하기도  
 하고 그기 인자 그 나무고등어 말하자면 **맛이 있고 없고는 있어**.  
 그것도 인자 그거 인자 그기 발견된 거지. **옛날엔 그게 없었다니**  
**까. 막막 막먹는 시절이 돼서**.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상인, 중구)

다. **똥뿔라구도 있고, 참뿔라구도 있고, 그 다음에 열기도 있고, 전부**  
**뿔라감인데, 그 다음에 우럭이도 있고 고 정도만 합시다.** 고거는  
 가에, 바닷가에서 나기 때문에, **이제 돌섬에서 난다 해가지고 맛도**  
**없고 똥뿔라구.** 했습니다. 방파제 쪽으로 해가주고 망바다(먼바  
 다)에서 난다고 열기 같은 경우도 망바다에서 나고(상인, 기장군)

상인은 맛도 좋고 외양도 좋은 것은 접사 ‘참-’을, 또 맛도 없고 부드럽지  
 않은 것은 ‘나무’, ‘개-’, ‘똥’을 통해 나타냈다. (15가)의 ‘나무까부리, 나무가부리’  
 와 (15나)의 ‘나무고등어’를 상인은 나무의 외양에서 나타나는 성질인 딱딱함에  
 연유해 나타난 명칭이라고 했는데 어류학자(부경대학교 김진구 교수)는 ‘나무’  
 가 남방 즉 남쪽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다. 이들 어원에서는 상인과 어류학자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모두 맛이 없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녔다. 상인들은  
 ‘나무’가 붙는 명칭은 모두 딱딱해서 맛이 없다로 설명했는데 ‘나무’가 가지는  
 시각적인 인지가 어류의 성질에서 맛까지 단계적으로 의미가 전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접사 ‘참-, 개-’와 명사 ‘물, 똥’ 등을 통해 맛을 표현하기도  
 했음을 (15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4.1.8. {성별} 유형

암수는 암컷, 수컷 외에도 ‘수치, 암치, 수조기, 암조기’로 성별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부와 상인은 모두 성별에 대한 명칭은 많지 않았는데 이를 함께 제시하면 다음의 (16)과 같다.<sup>32)</sup>

(16) 가. 그게 **암컷, 수컷** 아이가 쉽게 하면. **알 있는 것을 암치, 곤이 있는 걸 우리 숫놈이라** 그러는데, 수컷을 이야기하는데. 수치라 카기도 해.(어부, 가덕도)

나. 암놈이라, 아니. 곤재이라 그러고. **곤이 들었다** 곤재이. 그렇지. 곤은 엄청 맛있어. 하얀 게 푹 저저저 순두부처럼 생겨서 맛있지. 맞지. 알재이. 알은 못 먹는 기고 곤재이 곤은 먹는 거야. 그래서 곤재이가 맛있는 기라. 알은 머면 죽는데. 그거 먹는다고 곤 먹는다고 잘못 무가 알로 먹어 죽는 사람 많잖아. 그래가 죽는 사람 많았었다고. 곤재이. 알재이. 옛날에 우리가 그래 불렀어. (상인, 중구)

어부는 (16가)와 같이 어류에 대한 통칭으로 암컷은 ‘암치’로, 수컷은 ‘수치’로 나타냈다. 이는 알과 곤에 대한 설명과 무관하게 ‘암, 수’에 연유한 명칭이다. 반면 상인은 암수를 알과 곤으로 구분하고 있었음을 (16나)의 ‘곤재이, 알재이’로 알 수 있다. (16나)는 이 지역에서 ‘복재이’라고 하는 복어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복재이’와 동일하게 곤과 알로 구분되는 수컷과 암컷도 ‘-장이’를 붙여 ‘곤재이, 알재이’로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알재이’는 알을 배고 있다는 의미에서 접사 ‘-배기’를 써서 ‘알배기’로 말하기도 했다.

32) 제보자의 ‘그 머 새끼는 피래미라 그러고, 작다고. 그땐 당시는 암컷 수컷 개르고 이런 건 없었다.’, ‘이래 보면. 근데 그거를 특별히 머 암놈이네, 숫놈이네 카고 사먹는 거 뿐이 없었지. 특별히 이름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암컷과 수컷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4.1.9. {기타} 유형

다음은 <표 2>의 '기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명 기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내용 제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7) 가. 인자 저저 **떡장어** 거는 우리 여는 곰자. 어. 곰자. 이기 **주둥이도  
웁게 없고 바보글이 생겼다고.**(어부, 기장군)  
나. 과~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사투리로 가아라** 그러는데 **광언데**  
도다리하고 다릅니다.(어부, 기장군)  
다. (장어를 가리키며) 꾸무자네, 인자. 꾸무장.(어부, 강서구)

학술적인 명칭인 '떡장어'는 표준어는 '곰장어'로, 부산에서는 꼼지락거리는 움직임으로 인해 '꼼장어'라 부르기도 한다. (17가)의 '떡장어'라는 명칭은 바다 밑에 살다보니 눈이 멀어서 앞이 검은 떡과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서 연유한 것이고, '곰자'는 '곰장어'에서 음이 줄어든 것이다. 제보자의 말처럼 '곰장어'는 입이 있지만 주둥이가 없는데 이를 비하해서 '곰자'로 부른다고 한다.<sup>33)</sup> '곰자'와 같이 '어(漁)'가 생략된 형태는 광어를 가리키는 (17나)의 '과, 가아'와 장어를 가리키는 '꾸무자'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은 부산 외에도 울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경남 지역에서 폭넓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7다)의 '꾸무자'는 장어를 이 지역에서 부르는 말이다. 이처럼 뱀장어를 '뱀' 대신 '구무/꾸무, 굼'으로 나타낸 것은 장어의 한자어와 관련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뱀장어를 한자로는 穴子라고 하는데 바다의 모래를 파고 뚫고 들어가는 습성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즉 바다 바닥에 구멍을 내는 습성이 명칭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곰자'와 유사한 형태는 상어를 나타내는 표현인 (18)에서도 나타났다.

33) 이 중 떡장어는 턱이 없는 물고기, 즉 학문적 분류명으로 원구류라 하여 장어무리 중 갯장어, 붕장어, 뱀장어 따위 경골어류와는 완전히 다른 무리에 속한다.

(18) 죽사이는 **점이 퍼뜩퍼뜩한 게 있다고** 상어 죽사, 참사 천지지. 참사아  
는 **민들하게**.(어부, 영도)

위의 (18)의 ‘참사’는 맨들맨들하게 생긴 상어를, ‘죽사’는 몸통에 점이 있는 상어로 각각 ‘까치상어, 참상어’를 말한다. ‘참사, 죽사’를 보면 ‘상어’에서도 ‘어’가 생략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죽사, 참사’의 ‘사’는 상어(鯊魚)를 나타낸 것으로 鯊는 모래(沙)의 수식적 표기로 보인다. 문질망둑, 모래무지, 상어를 가리키는 鯊는 모래와 관련있어 보인다. 즉 鯊라는 명칭은 어류 표면이 모래와 같이 까칠까칠하다는 상태와 관련된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에 대한 기록은 다음의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 가. 鯊 상어 사<훈몽, 상, 11ㄱ> 나. 鯊漁 상어 <역어, 하, 37ㄱ>  
다. 鯊漁 사어 <왜어, 하, 24ㄴ> 라. 眞鯊 俗名 參鯊 <자산, 인유,  
1, 8ㄴ>  
마. 竹鯊 仍俗名 <자산, 인유, 1, 9ㄱ>

1814년 정약전이 쓴 어류학서인 『자산어보』의 기록인 (19라, 마)에서도 ‘죽사, 진사(참사)’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명칭이 지금의 어부들에게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sup>34)</sup> 이로 볼 때 앞서 살펴본 ‘죽사, 진사’는 ‘곰자’와 다른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즉 어부에서 ‘죽사, 참사’가 나타남을 통해 어부가 상인보다 어류 명칭에서 고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곰자’는 ‘어’를 생략해서 명명하는 어부들의 줄임말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은 망둑어를 가리키는 명칭에서도 나타났는데 (20)에서 살펴보자.

(20) 가. 도루묵? 도루묵 아이고 그기다. 꼬시, 꼬지 문저리, 문저리.  
문저리라는 게. **망둥어**를 꼬시래기, 고시라, 고시래기.(어부,

34) 『전어지(佃漁志)』, 풍사가의 『우항잡록(雨航雜錄)』에도 상어는 ‘백포사, 황두사, 구사, 검사, 오사’ 등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우해이어보』에서는 문절어, 수문(睡魷), 해궐(海鰐, 바다쏘가리)이라 하였다.<sup>36)</sup> (20가)에서 나타난 ‘문저리(문절이)’ 역시도 어부들이 고어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서 색에서 언급된 ‘감시’ 외에도 감성돔은 (20나)와 같이 ‘감생이’로도 나타났다. 『자산어보』에는 ‘黑魚 俗名 甘相漁<인유, 1, 5>’로 검은 돔을 가리키는 말로 ‘감상어’가 나타난다. 이때의 ‘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다)’과 관련지을 수 있다. 이기갑 외(1998:12)에서는 완도에서 ‘감생이’가 나타남을, 김홍석(2008:96)에서는 『자산어보』가 쓰여진 1814년 경에 ‘감생이’로 불려졌을 가능성 말한 바 있다. 이로 볼 때 ‘감생이’는 고어형이며, ‘감시’는 최근에 어부들이 사용하는 줄임말로 볼 수 있다. (20다)의 ‘메저지’는 ‘물메기’를 말하는 것으로 메기, 물곰과 유사한 모양새를 지닌다. 그래서 ‘메기>미기, 메저지>미저지’의 변화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명칭의 유래는 어부들도 알 수 없었는데, 『자산어보』에 이와 유사한 미여기(迷役魚, 무엇이 쓰는 물고기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지금의 그 물메기인 메저지를 지칭하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술병을 잘 고친다’는 해점어(海鮫魚) 표기와 ‘그냥 삶으면 살이 풀어지기에 상할 때를 기다렸다가 먹었다’는 물메기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 추정만 할 뿐이다. 메기를 닮았다 하여 이름지어진 ‘물메기’는 ‘꼼치, 곰치, 물곰, 미저지, 미기, 물텀병’으로 달리 불리기도 했다. 이러한 물메기는 (20다)의 ‘돈 안 된다고 그 물메기를 내빼리빼고’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못생긴 모양으로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생선 취급을 받지 못했고 어부들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한다.<sup>37)</sup> 방어를 (20라)의 ‘부리’로

36) 서유구의 『전어지』에는 민물에 사는 망둥어의 눈이 망원경 모양과 같다고 해서 망둥어(望瞳魚), 뛰며 돌아다니는 물고기라는 뜻으로 탄도어(彈塗魚)로 기록되어 있다.

37) 물메기는 과거 그물에 걸리면 재수 없다고 도로 바다에 버리거나 기껏해야 사료로 쓰이던 신세였다. 하지만 오늘날 이 둘은 같은 것으로 통한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자료에 ‘꼼치(일명 물메기)’와 같은 식으로 표기하지만 통영에서는 ‘꼼치는 더 뚱뚱해서 북어처럼 생겼다’면서 서로 다른 것임을 말했다. 한편 ‘물텀병’이라는 이름은 옛 시절 잡혀 올라와도 이상한 생김새에 살까지 물려서 어부들이 그대로 버릴 때 ‘텀병’ 하는 소리가 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어부와 상인 모두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히리수를 ‘부리’라고 하는 사람과 방어를 ‘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모두 방어 관련 어휘임은 알 수 있다. 문헌에서는 망어(芒漁), 방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자산어보』에는 ‘大斯漁’로 표현했다. 김홍석(2008:126)은 표준어명이 ‘부시리’임을 생각해 ‘대사어’의 ‘대’를 ‘夫’의 오기로 봤다. ‘부리’를 ‘부사어’로 보면 고어와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고, ‘대사어’라면 어부와 상인들 모두 큰 방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적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획물 명칭 분석을 통해 기존 사전에 등재된 어휘 외에도 다양한 어촌 생활어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중 어류에 관한 명칭은 어촌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있는 ‘크기, 색과 문양, 형태, 상태’와 어부와 상인의 환경과 관련있는 ‘생태 습성, 서식지’와 ‘맛, 성별’ 등이 그 명명 기제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류명은 어류가 지닌 외형을 중심으로 그 어류의 생태 습성, 서식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중요한 요소인 맛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즉 어부들이 외관상 가장 먼저 인식하는 ‘크기, 형태, 색과 문양’을 중심으로 어류의 신선도를 말하는 ‘생태 습성, 상태’ 관련 어휘가 발달했고, 지역적인 특징과 어부들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서식지, 성별, 어로 도구’가 발달되었다. 반면 상인은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맛’이 발달되었다. 그 결과 가장 먼저 인식하는 크기, 형태, 색과 문양에 관한 어휘는 많은 반면 지역적인 특성과 어부와 상인들의 작업 형태에 따른 어휘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익숙한 환경이므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 5. 어휘 유형으로 본 명칭 추론의 단계

우리가 부르는 어류 명칭 안에는 어류가 가지는 수많은 속성에 대한 개념들이 있다. 앞서 살펴본 명명의 기제인 ‘크기, 형태, 색과 문양’ 등도 어류가 가진 여러 속성 중 부분적인 개념이다. 이처럼 어부와 상인은 어류를 명명할 때 전체적인 관계나 전체적인 특징보다 부분적이고 국소적인 특징을 통해 명명하

는데 이는 경제성 원리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색과 문양이라는 하나의 개념 정보는 어류가 가지는 여러 개의 체색, 문양 중 대표적인 하나의 하위 정보에 의해 명명된다. 그래서 ‘노랑이, 범개이’와 같은 명칭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행위자의 인식의 단계를 생각하면 상위의 정보가 하위로 전달되는 과정이 유추되지만 실제로 어부와 상인이 명명하는 것은 이러한 단계가 생략된 하위의 부수적인 정보이며 이를 통해 대상물을 유추해야 한다. 즉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는 과정을 계층적인 관계로 도식화할 수 있는데 이를 어부와 상인이 명명하는 어류명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류의 명칭을 유형화하고 그 사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 각 직업에서 어류 명칭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것은 ‘중살이, 대살이, 노랑이’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지하기 용이한 크기, 색과 문양, 형태와 같은 유형이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시각적인 인지를 바탕으로 ‘고등고시, 꺼철이’와 같은 어류의 생태 습성, 상태에 주목해 대상을 명명하고 있었다. 이는 서로 다른 수준에서 명명하는 것으로 ‘고등고시, 꺼철이’를 시각적인 인지만으로는 그 명칭이 가리키는 대상이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즉 서로가 다른 수준에서 명칭을 추론하는 것이다. 즉 어부와 상인들이 사용하는 명칭과 명명 기제를 통해 명칭 추론의 단계를 ‘시각적 인지, 분석적 인지, 국소적 인지’로 설정할 수 있다. 먼저 제1 단계는 시각적 인지 단계로 전체적인 모양새로 어류를 인식하고 성질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즉 어류를 시각적으로 인식해 때로는 동일한 명칭을 다른 어종에 사용하기도 했는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2 단계는 분석적 인지 단계로서 어류의 성질에 주목하여 어류의 성질과 상태를 분석했다. 즉 어류를 특징 짓는데 필요한 습성, 성질의 한 요소를 명명하는 단계로 어류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행위자에 따라 범주에 따른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 즉 각 직업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명명된다. 그래서 어부는 생태 습성, 서식지, 상인은 맛과 용도, 상태를 분석적으로 인지한다. 제3 단계는 국소적 인지 단계이다. 다소 추상적 수준으로서 어류의 성질, 그 관계가 논리적으로 인지되는 수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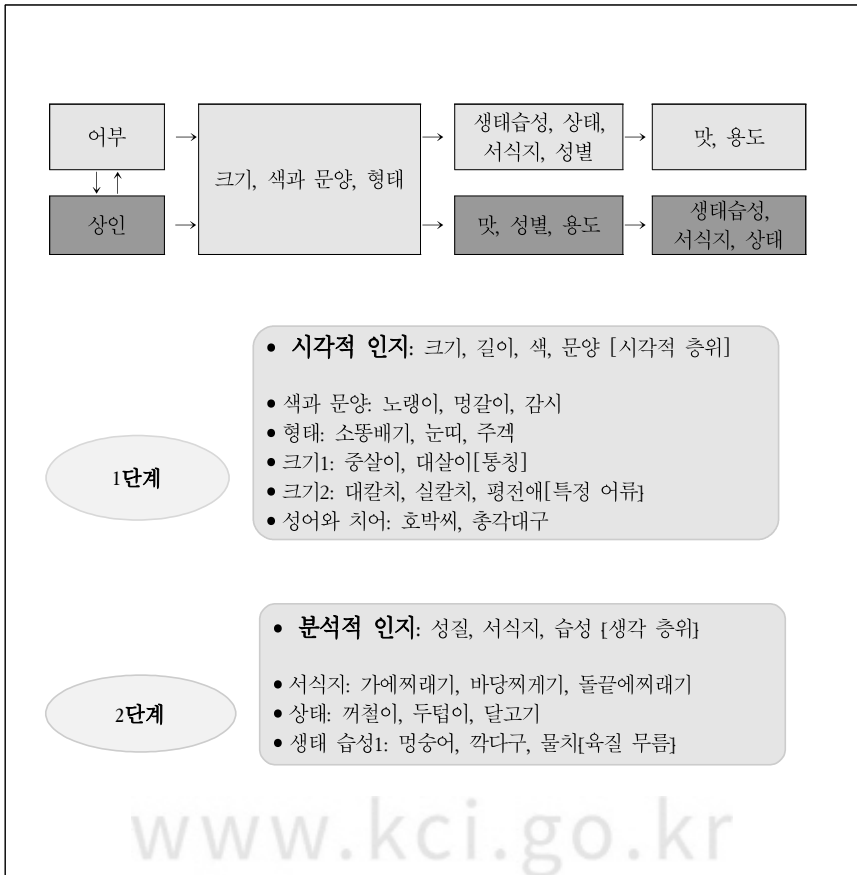
어류를 추상적 개념을 통해 정의하기도 하며, 어류의 모양, 성질에 대한 국소적인 부분 조건을 명명하기도 한다. 어부와 상인은 크기, 길이, 모양, 색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류의 성질에 대한 분석, 부분적 특징과 관련해 명명하였다.

한편 때로는 어류가 가지는 속성들에 다른 속성이 가감되거나 속성들의 변형으로 또 다른 명칭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이는 이들 집단의 은어, 직업어라 할 수 있다.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명칭은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1단계에서보다는 분석적으로 인지하고 국소적인 특징으로 명명되는 2, 3단계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이 은어의 성격을 더 많이 띠게 되고 이는 다른 직업군은 이해할 수 없는 특수어가 된다. 그 결과 동일한 대상물을 취급해도 각각의 집단에서만 나타난 명칭은 원래의 대상물의 특징과 명칭을 찾아볼 수 없는 제3의 명칭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어휘는 지역적 차이 외에도 언어 사용자 즉 어부, 상인의 환경과 인지 관점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수 집단의 행위자인 어부, 상인이 대상을 의미화하고 표상화함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사회 계층에서 발생한 특수직업어를 은어라 할 수 있다. 어촌 사회의 은어는 어부와 상인들의 특수어(special language)이다.<sup>38)</sup> 행위자가 처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하나의 대상물의 명칭에도 여러 분화 기제가 작용하였음도 알 수 있다. 그 결과 어부와 상인의 주된 명명 기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세부적인 기제에서는 어부는 어획 활동과 관련되는 '계절, 성별, 어로 방법, 서식지'와 관련된 명칭이, 상인은

38) 이러한 은어로서는 절도인, 산삼 채취인, 맹인, 양공주, 군인, 학생, 어부, 해녀, 광부, 기생 등의 많은 집단의 은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가운데 조사·연구된 것도 있다. 소창진평 박사가 산삼채취인의 은어를 수집한 이래 이승녕, 이길록 교수에 의해 자료 수집과 비교가 행해졌다.(이승녕, 1958) 이 외에도 걸인어 연구(김민수, 1958), 범죄인 은어 연구(장태진, 1956), 군인 은어의 연구(강신항, 1957), 대학생의 은어 연구(김영태, 1976), 기생 은어 연구(이종석, 1966) 등이 있다. 이처럼 언어의 지리적 거리 외에도 언어의 사회적 거리에 의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입장이 생기면서 주목된 것이 계급,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이다.(Fishman, J.A. 1972: 13-17) 즉 은어는 사회적 변이의 언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그 사회 계층의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주고객인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맛, 용도, 원산지’와 관련되어 나타났다. 또한 제보자의 거주 지역의 차이는 주변 환경, 직업의 차이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동일 대상물에 대한 하위어 확장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행위자의 세계 인식 방법을 통해 어휘 분화기제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분화기제의 적용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어부와 상인이 어류를 명명하는 <그림 1>과 같은 도식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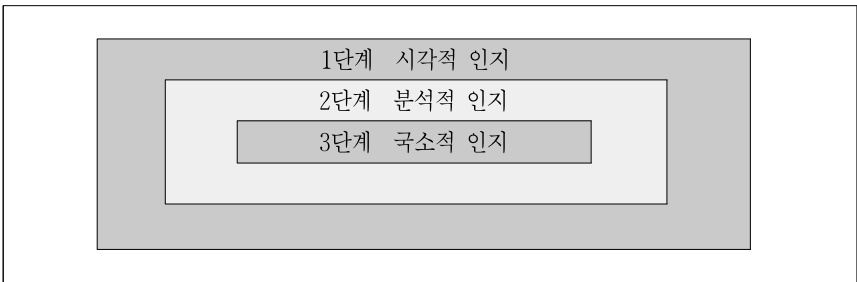
<그림 1> 어류 명칭 명명 양상과 단계의 층위



3단계

- 국소적 인지: 어류 모양, 성질 [부분적, 추상적 층위]
- 생태 습성2: 고등고씨, 뱀갈치, 물까재미기[물처럼 혼합]
- 맛: 똥고기, 나무까부리
- 용도: 젓머르치
- 성별: 곤재이, 알재이

\* 행위자의 직업에 따라 국소적 인지의 항목이 달리 나타남.



## 5. 맺음말

이 글은 어류를 취급하는 어부와 상인을 통해 이들 직업군이 어류를 어떻게 명명하는지, 이들 직업군의 어휘 사용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 부산 지역의 어촌인 영도, 가덕도, 기장군, 중구에서 언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실제 어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부와 상인들의 언어를 통해 이들의 어휘물 명칭에 대한 인식 체계의 차이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지를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위자의 직업과 관련된 언어 외적 양상에 따른 사회언어학적 요인과 이들 직업군이 어류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와 관한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을 통해 명칭을 사회 환경과 인지 작용과의 관련성 속에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휘물이 어부와 상인에 따라 달리 명명되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인지와 대상물이 존재하는

환경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부산 어촌 지역에서는 어부는 어종의 명칭을 크기, 색과 문양, 형태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화한 후 생태 습성, 성별, 상태, 어로 도구, 서식지에 따라서 이차적으로 분화하였고, 상인은 원산지를 기본 기제로 두고 일차적으로 색과 문양, 형태, 크기에 따라 분화한 후 이차적으로 상태, 맛, 용도에 따라 분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이들 직업에서 가지는 경제성과 관련이 깊은데 이로 인해 하위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류를 잡기 위한 어부의 준비 단계부터 이를 다시 어시장의 상인이 소비자에게 파는 각 단계별로 사용되는 어류 명칭을 그 조사 대상으로 한 결과 행위자에 따른, 어류 유통 단계에 따른 어류 명칭 파악으로 좀더 체계적인 어촌 생활어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어류 유통에 따른 단계별 어류 명칭 파악은 물론이고 행위자에 따라 명명 내용과 방법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언어 분화 양상의 기제와 그 원인이 이들의 환경에 기인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어류 관련 어휘의 다층화된 어휘망 구축 및 미등재어를 발굴할 수 있다. 어류에 관련한 어휘를 조사·수집한 후에, 행위자의 범주에 따라, 분화 기제에 따라 하위 항목으로 자료화하여, 말뭉치로 집적하였다. 그동안 어부의 입장에서 조사된 기존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롭게 발굴된 미등재 어휘들은 현재의 국어사전과 어류 도감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조사된 연구와 연계한다면 어류 명칭어를 주제로 한 어휘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산 지역의 현재의 어촌 생활어와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었다. 실질적인 어휘 조사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같이 한 '어촌'에 대한 생활어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소멸 위기의 어촌 생활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언어문화의 토대를 구축하여 어촌 생활 문화의 살아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언어문화 자산의 보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 지역에 존재하는 두 개의 어촌 형태인 도시형 어촌과 어시장 그리고 시골형 어촌과 어시장의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 얻은 어류 명칭의 어휘와 용례 자료는 어촌 생활어의 어휘장을 구축하여 국어학의 방언 연구, 어휘 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소멸 위기의 어촌생활어 보존이라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 또한 행위자에 따른 언어의 특징과 그 명명 방법은 사회언어학과 인지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연구 대상의 다변화를 통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지금 아쉬움이 남는 다양한 어형에 대한 어원, 의미 변화, 어휘 사용 외적 측면에 대한 고려, 언어 변이와 언어 외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고민하도록 할 것이다.

■ 주제어 : 어촌생활어, 명칭, 사회언어학, 인지언어학, 분화, 양상, 명명 기반, 어휘장

### <참고문헌>

- 강영봉, 「제주도방언의 어명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16-1, 제주대학교, 1986, 51~68면.
- 강정희, 『제주방언연구』, 한남대 출판부, 1988.
- 강정희·김지숙 외, 『2013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 어촌생활어 질문지 -』, 국립국어원, 2013.
- 곽충구, 「어의분화에 따른 단어의 형태분화와 음운변화」, 『국어사와 차자표기』, 태학사, 1995a.
- 곽충구, 「어휘의 의미분화와 명칭의 분화-지령이와 회충의 단어지리학-」, 『한일어학논총』, 국학자료원, 1995b.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국립수산과학원, 『울릉도의 해양과 수산』,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2006.
- 김덕호, 『경북방언의 언어지리학』, 월인, 2001.
- 김익수 외, 『한국어류대도감』, 교학사, 2005.
- 김일기, 「곰소만의 어업과 어촌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김순자, 「제주도방언의 어류 명칭 연구」, 영주어문 25집, 2013, 19-54면.
- 김정대, 「용기류의 낱말밭: 경남 창원지역의 '도기 용기류'를 중심으로」, 『가라문화』 7(경남대), 1989.
- 김지숙, 「행위자의 관점에 따른 명태 명칭의 분화 양상」, 『사회언어학』 20(2), 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149-184면.
- 김지숙, 「울릉도 어촌 지역의 오징어의 명칭과 의미 분화 연구」, 『사회언어학』 21(3), 한국사회언어학회, 2013, 83-111면.
- 김지숙, 「어류 명명법 연구」, 중앙어문 69집, 2017, 57-97면.
- 김택구, 『경상남도의 언어지리』, 박이정, 2000.
- 김홍석, 『한국산 어류 명칭의 어휘론적 연구』, 공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6.
- 김홍석, 『자산어보와 우해이어보』, 2008.

- 박경래, 「사회방언론」, 『방언학』 1, 2005a, 125-171면.
- 박경래, 「사회방언 연구를 위한 조사 질문지」, 『방언학』 2, 2005b, 171-213면.
- 박성중·전혜숙, 『한국 방언 사전』, 태학사, 2009.
- 부경대학교 해양문화연구소, 『조선시대 해양환경과 명태』, 국학자료원, 2009.
- 여찬영, 「우리말 물고기 명칭어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9, 효성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연구소, 1994, 1-26면.
- 왕한석, 『한국의 언어 민속지 - 경상남북도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윤정옥, 「우리나라 물고기 이름의 형태·의미 구조 연구」, 울산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 학위 논문, 2008.
- 이경진,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예문사, 2003.
- 이광정, 「어류 명칭의 문헌적 고찰 및 방언조사(1):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국어문법연구2: 국어학사 외, 역락, 2003, 259-321면.
- 이기갑,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1998.
- 이기갑, 「방언어휘론」,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지식산업사, 1990.
- 이기문,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1991.
- 이익섭, 「방언에 있어서의 의미 분화」, 『방언』 3, 1980.
- 이익섭, 『방언학』, 민음사, 1984.
- 장태진, 「물고기 이름의 어휘 연구」, 한글 143, 한글학회, 1969, 112-141면.
- 전광현, 「동해안 방언의 어휘(1)」, 『국문학논집』 9(단국대), 1978.
- 정승철, 「방언학사」, 『인하어문연구』 5(인하대), 2001.
- 조숙정, 「조기의 민족어류학적 접근」, 『한국문화인류학』 45-2, 한국문화인류학회, 2012, 239-278면.
- 최명옥, 「방언」,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민음사, 1990.
- 최전승, 『한국어 방언사 연구』, 태학사, 1995.
- 최학근,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1990.
- 홍순탁, 「자산어보(茲山魚譜)와 흑산도 방언」, 『호남문화연구』 1(전남대), 1963.
- 홍윤표, 「방언사 관계 문헌자료에 대하여」, 『행촌김영배선생회갑기념논총』, 경운출판사[1992, 『남북한의 방언연구』에 재수록, 1991.

Tyler, Stephen A. *Cognitive Anthropolog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9.

Fishman, J.A. Domai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 and macrosociolinguistics. In Gumperz & Hymes, 1972.

[Abstract]

## **Sociolinguistic Segmentation Patterns of Fish Naming among Fishermen and Fish Merchants in Busan Korea**

Kim, Ji-suk

Previous studies on the language vernacular used in Korean fishing villages have primarily been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fishermen. In order to address thi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pattern of language use according to different occupations by surveying the names of fish used by fishermen and merchants in the fish markets of Busan, Korea. Depending on the language context of the actor, the names used to refer to these fish may vary. The results of classifying the names of fish according to nomenclature mechanisms revealed different patterns of segmentation in fishermen and merchants depending on their environment and perspectives in the language context. Based on the patterns of segmentation, the foundation for a lexical network of fish names was established. Moreover, the segmentation patterns of fish names according to the perspectives of the two types of actors were described. These descriptions demonstrate that the actor's environment and perception manifest in this segmentation in three stages: visual, analytic, and localized.

**【Key words】** : Fishing village language, names of fish, Sociolinguistics, Cognitive linguistics, Differentiation pattern, Busan, classifying the names, actor's environment, perception

---

---

**김지숙**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교양학부 교수

(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경성대학교 창의인재대학

전자우편: jya3317@naver.com

---

---

이 논문은 2017년 7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9월 10일에 심사 완료되어 9월 14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www.kci.go.kr

